



光州日報



與 최악 참패... 한나라 압승

시·도지사 한나라 12·민주 2·우리 1곳 당선

제주 한나라·무소속 '초박빙' <1일 새벽 1시 현재>

▶ 관련기사 2·3·4·5·6·7·8면

5.31 지방선거 중반 개표 결과 한나라당이 전국 16개 시·도지사 중 수도권 3곳을 포함해 12곳에서 당선자를 내 압승했다.

반면,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은 전북 한 곳에서만 당선됐으며, 민주당은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두 곳에서 승리했다. 한나라당은 전국 230개 기초단체장의 70% 이상을 '씩쓸이'하며 압승을 거뒀다. 제주에는 한나라당 현명관 후보와 무소속 김태환 후보간 박빙의 승부가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론과 '이대로는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하다'는 차기 대선 비관론이 고조되면서 심각한 내홍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벌써부터 '정 치권 박빙'의 진원지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한나라당은 향후 정국 운영과 대권 레이스에서 주도권을 쥌 수 있게 됐다. 특정 정당이 사실상 지방정부를 대부분 장악하게 된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16개 시·도지사 중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군데를 석권한 것을 비롯 모두 11개 시·도에서 승리했다.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김문수 경기지사 후보, 안상수 인천시장 후보는 각각 열린우리당 강관실, 진대제, 최기선 후보를 여유있

는 표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한나라당은 또 부산(허남식), 대구(김범일), 대전(박성호), 울산(박맹우), 강원(김진선), 충북(정우택), 충남(이원구), 경북(김관용), 경남(김태호)에서도 당선돼 12군데의 광역단체장을 차지했다.

민주당은 광주시장(박광태)과 전남지사(박준영) 등 2명의 당선자를 내 수성에 성공했다. 열린우리당은 전북지사(김완주) 선거에서만 가까스로 승리해 0매를 면했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한 정당이 가장 많은 광역단체장을 확보한 것은 지난 2002년 한나라당의 11곳이었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사상 최고의 성적을 거둔 반면, 열린우리당은 여당으로서 최악의 참패를 기록한 것이다.

지난 2002년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국정 운영 및 경제정책에 대한 실망감으로 여당 지지자 가운데 이탈자가 많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낮은 투표율도 젊은층의 지지도가 높은 여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시·도지사 당선자



투표율 광주 46.3% 전남 6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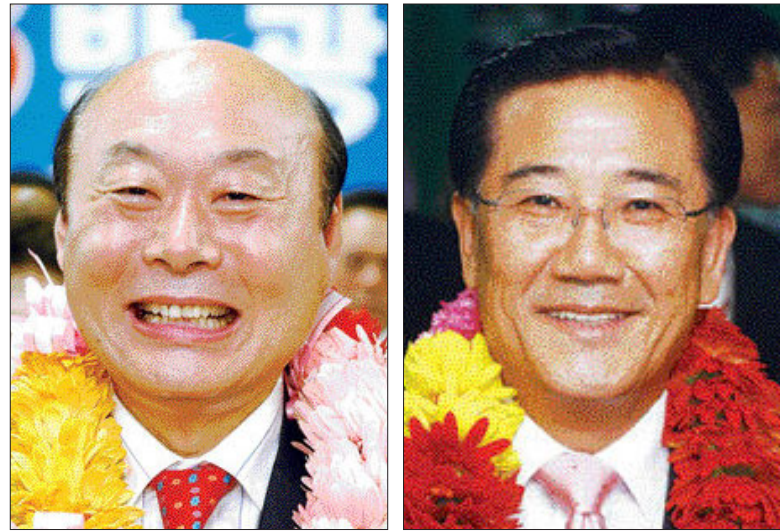
전국 51.3%...2002년보다 높아

5·31 지방선거 광주 지역 투표율이 1일 새벽 1시 현재 46.3%, 전남은 64.2%로 잠정 집계됐다. 또 전국적으로는 총 유권자 3천706만4천282명 가운데 1천900만91명이 투표에 참가, 51.3%의 투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

타났다. 광주지역 투표율은 2002년 제3회 지방선거(42.4%) 때보다 3.9%포인트 높지만, 2004년 총선(60.2%) 때보다는 13.9% 낮은 것이다. 지역별로는 광주 남구(48.5%)가 5개 구 가운데 가장 높았고, 북구(44.4%)가 가장 낮았다. 전남지역 투표율은 2002년

지방선거(65.6%) 때보다 1.4% 낮고, 2004년 총선(63.4%) 때보다는 0.8%포인트 높은 수치이다. 22개 시·군 중 구례가 78.8%로 가장 높았고 곡성(77.7%), 보성·진도(각 75.9%)가 그 뒤를 이었으며 목표는 50.0%로 가장 낮았다. 전국에서는 이번 선거 최대 접전 지역인 제주가 67.3%로 가장 높았고, 전남 64.2%, 경북 61.2%, 강원 58.4% 순이었으며, 인천이 44.2%로 가장 저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광주시장 박광태씨 전남지사 박준영씨



박광태 광주시장 당선자

박준영 전남지사 당선자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경합 치열

5·31 광주·전남 지방선거 결과 광주시장과 전남지사는 민주당 소속 현직 광역단체장인 박광태 후보와 박준영 지사가 승리해 수성(守城)에 성공했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광주에서는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고, 전남에선 지방선거 사상 처음으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무소속이 지방정부를 3분하는 구도를 낳았다.

특히 무소속은 양당의 대결 구도 속에서도 지난 2002년 선거에 이어 대거 약진했다.

현직 단체장들도 줄줄이 탈락해 물갈이 폭이 컸으며 이번 또한 속출했다.

선거 개표 결과 1일 새벽 0시 현재 광주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박광태 후보는 52.1%의 득표율을 기록 34.4%에 그친 열린우리당 조영택 후보를 제쳤고, 전남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 박준영 후보가 67.1%를 득표해 열린우리당 서범석 후보(18.9%)를 큰 격차로 물리쳤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광주 곡산, 여수, 담양, 장성, 영암, 구례, 영광 등 10여곳에서 막판까지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다.

광주지역에서는 구청장 5곳 석권을 노리고 있는 민주당이 무소속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는 곡산구를 제외한 4곳에서 승리가 유력시돼 지역민심의 '탈 열린우리당' 현상이 뚜렷했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실망이 큰데 선거 막판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의 '광주사태' 발언과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산 정권' 발언도 여당에 대한 반감을 심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전남에서는 민주당이 목포, 순천, 광양, 강진, 해남, 화순 등 9곳에서, 열린우리당은 무안, 완도, 진도, 구례 등 5곳에서 무소속은 나주와 장흥, 함평, 신안 등 5곳에서 각각 앞서고 있다.

여수와 고흥, 담양 등 4곳은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신안은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어 예측 불허하다.

지난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에 참패한 민주당은 이후 3차례 재·보선에서 승리한 데 이어 4연승을 기록해 전통적인 지지기반을 회복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광주·전남 기초장 당선·유력자 <1일 새벽1시 현재>

- 광주 동(민) 유태명 당선
- 서(민) 전주연 유력
- 남(민) 황일봉 당선
- 북(민) 송광운 유력
- 광산(민) 전갑길 유력
- 전남목포(민) 정종득 당선
- 여수 ? 경합
- 순천(민) 노관규 유력
- 나주(무) 신정훈 당선
- 광양(민) 이성웅 당선
- 담양 ? 경합
- 장성(무) 유두석 유력
- 곡성 ? 경합
- 구례(무) 서기동 당선
- 고흥 ? 경합
- 보성(민) 정종해 유력
- 화순(민) 전형준 당선
- 장흥(무) 김인규 유력
- 강진(민) 황주홍 당선
- 완도(무) 김종식 유력
- 해남(민) 박희현 유력
- 진도(무) 박연수 유력
- 영암(무) 김일태 유력
- 무안 ? 경합
- 영광 ? 경합
- 함평(무) 이석형 당선
- 신안(무) 고길호 유력

이번만큼은 후회없이 딥화이트닝
이제부터 딥화이트닝 만만시전

IOPE